인터뷰 기업은행 포천지점 심우만 지점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R&D분야에 투자해야"

"기업의 애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은행 이용하세요"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창업자금, 공장매입자금, 운영자금을 타 은행자금보다 저리로 공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시책 자료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은행입니다"

기업은행 포천지점 심우만(사진) 지점장은 2006년7월에 부임하여 포천관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직 출신의 CEO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금융에 대한 생소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심 지점장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기업은행 포천지점의 여수신은 3천억원 규모로 여신이 2천261억원, 수신이 785억원으로 본점에서 자금을 받아 관내 428개 중소기업의 발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신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심 지점장은"기업은 생리상 돈이 들어오면 투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은행의 설립목적이 중소기업 지원에 있는 만큼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심 지점장은 "내년도에는 여수신을 3천5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자금의 애로를 느끼는 중소기업에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곡성 출신으로 1974년 입사해 현재까지 기업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심 지점장은 "포천시는 도로사정만 나아지면 각광받을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며 "포천시는 기업의 인·허가 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은 충북 음성군으로 기업설립에 있어 공무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지도 소개해주고 인허가 문제도 쉽게 처리해 수많은 공장들이 음성군에 입주했다고 한다.

심 지점장은 또 "사업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항상 다음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R&D분야에 투자가 안되고 있는데 다음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지병으로 별세한 고 강권석 기업은행장은 각 지점장들에게 네이게이션을 선물해 사무실에 앉아 있지 말고 기업현장에서 '지역주치의'로서 역할을 주문하는 등 기업은행을 경쟁력 있는 은행으로 이끌어왔다고 강조하는 심 지점장은 "기업이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은행이 있음을 기업인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1961년8월1일 설립했으며 8천603명의 종업원이 국내 15개 지역본부, 532개 영업점과 해외 1개 지역본부, 9개 영업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수는 2007년6월기준 4억5천827만6천900주이며 최대주주는 재정경제부로 2억3천373만3천575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산업클러스터 구축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워크숍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학·연·관 관계자 초청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안준수)는 12월7일부터 1박2일간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경기북부지역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워크숍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안준수 원장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008년도에는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으로 지역혁신 자원조사·분석, 패널기업군 구축 및 추적관리, 혁신지원기관 연계활성화 지원, 기술혁신 공동체 활성화, 인프라 활용촉진, 기술인프라 연계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과 기술기업육성사업으로 창업(후) 보육사업, 기술투자 촉진사업, 기술경영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산·학·연·관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을 모시고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3시간여의 걸친 특강과 발표, 토론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회식에 이어 임덕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터 정책(IICP) 추진계획'에 대한 특강과 조동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본부장의 '가구산업 기술혁신 기반구축과 클러스터', 한동수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팀장의 '경기북부 섬유산업 클러스터 추진'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북부지역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전체토론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행복한 보험이야기 · 16

보험이 뭐길래?

'10년 납 10년 만기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어느 세월에 만기가 되었다. 10년 전 지인의 권유로 보험을 들게 되었다. 자의 반 타의 반 보험이 내게 뭐 필요할까, 난 이렇게 젊고 건강한데, 우리 부모님도 보험 없이도 잘 지내오셨는데, 또 10년이라니 너무 멀고도 길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어느새 10년이란 세월, 몇 번의 해약할까라는 유혹 속에서도 꿋꿋이 납입해온 s사 10년 만기 보험이 만기를 맞았다.

그렇게 여러 번의 유혹 아닌 유혹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납입한 보험, 만기 때 받은 금액은 특약 빼고, 뭐 빼고 하다 보니 적립금 60%를 받았다. 저축을 했더라면 원금에 이자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치면 100%는 훨씬 넘었을 텐데 하는 씁쓸함과 후회가 물밀듯 밀려 왔다. 건강함 탓(?)에 또 무사고 탓에 내 돈도 다 못 돌려받고... 좀 억울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험을 드느니 그 돈으로 적금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상대방 차량 주인은 부인이었고 운전한 사람은 남편의 친구였다. 남편이 음주를 한 터라 친구가 대신하여 운전을 해주다 사고를 낸 것이라 한다. 그 차는 부부한정으로 되어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상대방 모두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

처벌도 보상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차 수리비에 병원비에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였다. 그런데 다행이랄까, 어머니께서 내 앞으로 가입해 둔 보험덕분에 입원비등을 처리할 수 있었다. 개인이 처리하기엔 너무도 큰 목돈이었다. 큰 적금을 들어 둔 것도 없었고, 돈 빌릴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다.

얼마 전 보험 만기 시에는 억울한 생각에 보험은 결코 들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이번 경험으로 보험은 필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위의 경험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경험이 있든 없든 이제 보험은 누구에게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요즘 가장 시급히 가입해야 할 보험 상품은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암보험이 아닐까? 어떤 이유에서인고 하니, 첫째는 암 보험료 인상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암 진단 건 또는 암 진단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중에 절반이 암 사망 관련 보험금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 남성 4명중에 1명, 여성 5명중에 1명이 암 진단 경험이 있다고 한다. 암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다 보니 보험사의 암보험 자체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암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암 보험료 인상하는 보험사들이 속속들이 늘고 있다. 그러기에 암 보험이 없거나 보험금이 부족하다 싶으면 빨리 알아보고 가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암 진단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보통 암보험에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가입일로부터 90일 또는 180일로 정하고 있다. 책임개시일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점을 말한다.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암 진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혈액검사 후 골수검사(또는 조직검사)를 거치게 된다. 혈액검사 후 골수검사에서 암으로 판정되었다면 암 진단일은 골수검사일이다. 만일 골수검사일이 암보험 책임개시일 이전이라면 암 보험금은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나의 암 보험금이 얼마나 보장 되어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정
코인스 포천영업소 소장
010-3023-0065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4 명품 음식점

고품격 자양강장 스테미너식 장뚱어탕

대표 전 경 자

날씨가 추워지고 다른 계절에 비해 입맛도 없는 겨울철이다. 식사 때면 무얼 먹을까? 하는 고민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땐 건강도 챙기면서 맛도 일품인 고품격 자양강장 스테미너식을 권해보고 싶다. 바로 남도 음식의 대표적 별미인 짱뚱어탕이다.

명품 음식점(포천시 화현면 화현2리 760-2. 대표 전경자)은 천연간수와 국산콩을 사용해 만든 순두부 보리밥을 취급해오며 고객의 사랑을 받아온 곳이다.

지난 8월부터 음식점을 이어받은 전 대표는 시댁이 벌교인 관계로 짱뚱어와 인연이 되어 짱뚱어탕을 취급하게 되면서 경기북부 지역민들에게 남도의 별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짱뚱어는 청정갯벌에서 파닥파닥 뛰어다니며 플랑크톤을 먹고사는 바다 어종이다. 푸른색을 띠고 있으며 몸길이는 약 18Cm 정도라고 한다.

청정갯벌에서 힘이 좋아 민첩하고 빠르기 때문에 숙련된 낚시꾼들만이 잡고 있다. 근래에는 갯벌도 줄어들고 잡기도 힘들어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짱뚱어탕은 남해안에서 먼저 요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남원식 추어탕과 비슷한 음식이며 비린내가 없고 맛이 담백하고 얼큰한 맛이 자랑이다. 각 지역마다 맛은 비슷하지만 명품 음식점만의 노하우가 있다. 이 지역 고객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연구해 만든 것이다.

양질의 양념재료는 기본이며 우거지(시래기), 고사리, 토란대와 남도식 손맛이 어우러진 짱뚱어탕은 일품요리로 부족함이 전혀 없다.

여기에 시댁 벌교에서 시어머니께서 직접 담아 보내온 갓김치·파김치·배추김치·깍두기 등이 남도 찬의 진면목을 보여주며 짱뚱어탕과 환상적인 호흡을 맞추며 고객의 구미를 당기게 하고 있다.

음식을 주문한 후 기다리는 시간에 먼저 제공되는 부침개를 맛보며 실내에 내장되어 있는 청정갯벌에서 짱뚱어를 낚고 있는 사진을 감상하고 있으면 마음은 어느새 갯뻘로 향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며 지루함도 달랠 수 있게 된다.

잠시 후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져 나오는 짱뚱어탕! 한 숟갈 뜨다 보면 얼큰한 맛에 애주가들에게 떠오르는 것은 한잔의 소주다.

송글송글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을 닦노라면 갓김치와 다른 반찬이 추가되고 탕을 담아온 뚝배기는 어느새 바닥이 드러나 보인다.

전 대표는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순수하게 집에서 먹는 다는 마음이 들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식단을 신중하게 고려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다.

또한 전 대표는 "고객들이 탕과 반찬을 다 비우고 맛있게 먹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제일 흐뭇하고 음식업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잡 내음과 비린 맛이 없고 얼큰 담백
청정갯벌에서 잡아 올린 일품 짱뚱어

이 밖에도 명품 음식점은 홍어 무침, 순두부 보리밥, 오리·토종닭 백숙 등을 고객의 취향에 맞게 메뉴로 제공하고 있다. 개점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 오는 길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구리IC-퇴계원, 밤섬-진접, 장현-광릉내-베어스 타운-서파검문소 지나 일동방향으로 운전하면서 운악산 휴게소 지나 화현 이정표 보고 내려와 우측으로 오시면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T.031)532-2360. H.P.010)8448-2550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명품 음식점(포천시 화현면 화현2리 760-2. 대표 전경자)은 천연간수와 국산콩을 사용해 만든 순두부 보리밥을 취급해오며 고객의 사랑을 받아온 곳이다.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피상속인 부채 2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 확보해야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채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부채의 사용처를 알아내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춘다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할 때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의 용도를 입증할 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부채총액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즉, 부채의 용도를 80% 이상 입증한 경우에는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부채가 5억원인 경우에는 5억원의 80%인 4억원 이상 사용내역을 입증하면 나머지는 입증하지 않아도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한편, 부채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서류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따라서 일반 사인간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쉽게 채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세원관리4과
870-4484~4487/4502~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카드기 정비작업 중 로울러와 실린더 사이에 협착

▶재해발생 개요

2006년12월 피재자는 11시 20분경 카드기가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중 송급 로울러에 솜 뭉치가 끼어 브러쉬 로울러가 작동이 멈추자 그 위로 올라가 뭉친 솜을 털어내던 중 아직 회전이 멈추지 않은 근접한 실린더 로울러에 작업복이 말리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2시간 이상(사무직은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나. 기계설비 운전 중에 정비 작업 실시

카드기의 실린더 로울러가 회전이 멈추지 않아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설비에 올라가 로울러에 낀 잔여물 제거작업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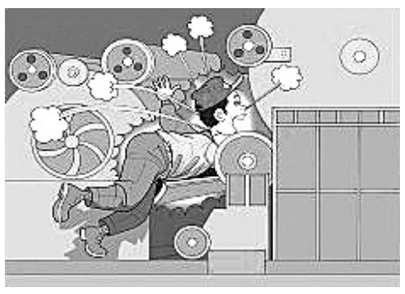
다. 로울러 등에 방호울 미설치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로울러 협착 부위에 근로자 접근을 방지하는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2시간 이상(사무직 1시간 이상)실시.

▶교육내용-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작업(기계·기구의 특성 포함)

수리/정비시의 안전조치사항 등

나. 기계설비 등의 정비작업시 운전정지

청소, 정비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후 작업.

다.로울러, 동력전달부 등에 방호울 설치

-로울러 및 실린더, 벨트, 풀리, 체인 등의 노출된 동력 전달부에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한 수리/정비가 용이한 구조로 방호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인가?

개인보험과 달리 의무가입·강제징수

보험료 미납하면 재산 압류도 가능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 등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해 사회구성원이 공동 대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전체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게 취지다. 그러므로 당연히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개인연금 등 개인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강제징수가 필요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 미납자를 방치할 경우 그들의 노후비용 부담이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개인 보험과 달리 강제징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강제징수는 가입자 각자가 비용부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차질 없이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차원이라 볼 수 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역시 강제징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연금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 79조에 근거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 공단에서는 최대한 안내와 설득을 통해 자진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또한, 소득·재산이 없는 생활 곤란 자, 임금채권이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재산, 미납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미납액이 100만원 미만인 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압류를 배제하는 등 강제 징수 수단을 최소화하고 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